

성산~녹동 바닷길 재개 물거품되나

'선라이즈 제주' 최근 울릉~포항 카페리 공모 참여 주민·지자체 반발... 성산항 지정면세점도 타격

(주)에이치해운이 성산항~녹동항 항로에 투입했던 '선라이즈 제주(1만 5000t)'호를 울릉~포항 항로에 투입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에이치해운이 지난 25일 신청을 마감한 '울릉~포항 대형 카페리선 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4일까지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수행능력과 사업계획서·재정건전성·선박 상태 등을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업체 설명회 등을 통해 평가한 뒤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에이치해운은 이 구간에 전라남도 고흥군 녹동과 제주 성산포 구간을 운행해 오다 지난해 10월부터 운항을 중단한 '선라이즈 제주호'를 노선에 투입할 예정이다.

'선라이즈 제주호'는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로 받주된 선박으로 여객 정원 638명·차량 170대를 적재할 수 있고 운항 속도는 21노트(39km) 수준이다.

에이치해운이 울릉~포항 항로에 '선라이즈 제주호'를 투입할 경우 성산~녹동 노선 재운항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에이치해운은 지난해 7월 성산항~전라남도 녹동의 바닷길에 '선라이즈 제주호'를 취항시켰다가 같은해 10월부터 휴항에 들어갔고 이후 운항을 재개하지 않다가 올해 1월 말까지로 휴항을 연장한 상태이다.

이에 성산포 주민들은 올해 '선라이즈 제주호' 운항 재개에 기대를 걸었으나 이제 이런 희망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제주관광공사는 지난해 에이치해운이 성산~녹동 항로에 '선라이즈 제주호'를 취항시키자 같은해 8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5년만에 성산항 지정면세점을 재개장했으나 에이치해운이 운항을 중단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당시 제주관광공사는 제주항으로

출도하는 관광객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성산항 지정면세점을 재개 했었다.

이와 관련, 성산포 주민들은 "올해 선라이즈 제주호' 재운항에 기대를 걸었는데 이제와서 성산 노선을 포기하고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울릉도로 가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다"며 "포항해수청은 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귀포시와 제주도도 이같은 의견을 해수부에 전달했다.

한편 포항해수청은 사업자가 선정되면 빠르면 오는 6월부터 울릉~포항 간 대형 카페리선의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대기자 bigroad@ihalla.com

바다 환경 지킴이 100명 채용 제주시,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

제주시는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를 위해 2021년 '바다 환경 지킴이' 100명을 채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선발될 바다 환경 지킴이는 3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7개월간) 제주시 관내 읍·면·동에 배치돼 구역별 책임 정화 활동으로 해양쓰레기 신속 수거처리와 투기 방지 및 계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사업비 13억 2000만원(국비 6억6000만원·도비 6억6000만원)을 확보했다.

바다 환경 지킴이 신청은 만 19세 이상 근로 능력자로서 해양환경 보전 활동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제주시 지역 거주자는 누구나 가능하며, 희망 근무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모집기간은 오는 10일까지로 1차 서류전형, 2차 체력시험, 3차 면접시험을 거쳐 100명을 선발한다. 근로조건은 1일 6시간·월 158만3400원(올해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적용)을 받는다.

바다 환경 지킴이 채용과 관련 세부사항은 제주시청(<http://www.jeju.go.kr>)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바다 환경 지킴이 확대 운영에 따라 해양쓰레기 수거를 향상할 수 있는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윤형기자



탐라국립춘궁 준비 한창 지난달 30일 제주목 관아 인근에 설치된 탐라국립춘궁 홍보물을 시민들이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다. 이상국기자

설 앞두고 33개 품목 물가 특별관리

제주시, 이달 10일까지 단속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중심으로 수요증가 등에 따른 물가 인상이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특별 물가 관리가 이뤄진다.

제주시는 이달 10일까지를 설 명절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설정해 5개 분야·33개 품목(농산물 10, 수산물 6, 축산물 3, 개인 서비스 8, 가공품 6)에 대한 물가안정관리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가격 및 수급 동향을 파악하고 지도점검반(5개 부서 합동)을 편성해 불균형 제수용품에 대한 품목별 수급 조절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설 명절 전 성수품을 중점 관리하기로 하고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불법 거래행위 등 상거래 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윤형기자 yhle@ihalla.com

또 소비자단체, 상인회 등 민간주도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민 실천 운동 대대적 전개와 장바구니 물가 조사 등을 통한 물가 정보 제공으로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제주시 각 부서와 상인회, 자생 단체 등을 통한 설맞이 전통시장·골목상권 이용하기 캠페인과 함께 '탐나는진' 홍보를 통해 지역화폐 조기정착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서귀포시 노인일자리 2개 사업 '첫선'

공공행정 지원·경로당 도우미 4445명 대상... 162억원 투입

서귀포시는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행정기관 시설관리 금융업무 및 금융범죄 예방 홍보 안내 ▷경로당 회계업무 지원 등 2개 사업을 처음으로 도입해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따른 사회서비스형 확대를 추진, 지역 어르신들의 경력과 활동영역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사회서비스형 7개 사업을 운영, 380명에 대한 노인일자리 제공한다. 사업 내용은 신규 사업 2개를 포함해 시니어 컨설턴트 양성 및 은퇴자 직무 발굴, 취약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및 관리, 치매예방 인지활동 프로그램 진행, 지역아동센터

어르신 보조교사 지원, 유아교육기관 보조교사 지원 등이다.

2월부터 현장에 투입되는 이들은 그동안의 단순 환경정비 이외에 본인의 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니어 취업 컨설턴트, 금융범죄 예방 홍보, 경로당 회계업무, 지역아동센터 및 유아교육기관 보조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시는 올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 41개 사업에 예산 162억원을 투입한다. 어르신 4445명에 대한 소득 창출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서귀포시니어클럽,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시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연령층을 확대,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60대 이상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다. 백금탁기자

"설 연휴 2051명 아동급식 차질없이 지원"

도시락업체·사회적기업 점검

서귀포시는 설 연휴를 앞둔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2051명에게 공백 없이 원활하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설 연휴 아동급식 대책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아동급식 지도점검반을 구성해 2월 1일부터 5일까지 해당 사업에 참여 중인 도시락업체, 사회적기업 등 40곳을 대상으로 설 연휴 대비 아동급식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식중독 예방지침 구비 및 위생 교육 실시 여부, 유통기한 및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부식 메뉴 수준 등이다.

시는 올해 23억3600만원을 투입해 저소득가구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결식 예방을 위한 급식 지원을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보호자가 충분한 주·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등 결식 우려가 있을 때 1인 1식에 대해 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신청은 연중 수시로 이뤄지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지원팀(064-760-6441)으로 신청하면 된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양식장 고수온 피해예방 추진 영양·면역증강제 구입비 지원

서귀포시는 양식장의 고수온 장기 노출로 양식어류 대량폐사 피해가 매년 되풀이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올해 '고수온 피해 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올해 관련 예산은 1억4000만원 규모로 지역 내 육상양식장 28개소에 대해 영양제, 면역증강제 등의 구입비로 지원된다. 지원한도(보조율)는 어가당 500만원(보조 60%, 자부담 40%)이다.

시는 이와 함께 오는 2월 4일까지 위해생물(기생충) 구제제 지원사업에 7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제주지역에 8월 중순부터 9월 초순까지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돼 서귀포지역 6개 양식장에서 어류 약 30만마리가 폐사했다. 대부분 지하해수가 없는 서부지역에 집중됐다. 지역 내 지하해수가 없는 양식장은 74개소에 이른다.

고수온 주의보는 수온 28℃ 이상이 3일간 지속될 때 발령된다. 주요 양식어종 적정수온은 넙치 20~25℃, 강도다리 14~17℃, 돌돔 23~26℃, 참돔 20~28℃ 등이다. 백금탁기자

SM그룹 에스엠신용정보

생각만해도 머리 아픈 돈, 돈! 최선으로 받아줍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에스엠신용정보**를 선택하십시오!
만족으로 보답해 드립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부동산대금, 투자금,
빌려준돈(판결문, 공증), 약정금, 구상금, 계돈

고객님 언제든지 전화,방문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며 착수금(선불경비)일체 받지 않습니다

에스엠신용정보 제주지사 ☎ 064)756-9041

직원모집 추심관리사, 영업전문직을 모집합니다 064)725-9001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마을·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연작장애 토양 소득 살균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9종

PAA 염류전질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율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페르카 효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공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YouTube 석회질소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